

INTERACTION X DESIGN



MATTEO THUN ATELIER vasi bicolore and Totem AC collection

Matteo Thun Atelier is a collection of handmade, high-quality and customizable objects.
It's a tribute to traditions, arts and crafts, materials and techniques.



● ● ● MASTERPIECE

각 분야 최고의 인물들을 엄선해 소개한다. 거장들의 약력과 작품을 통해 성공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독특한 감성과 다양한 시각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준다. 이지민 기자

Matteo Thun
MATTEO THUN & PARTNERS



마테오 툰(Matteo Thun)은 1952년 이탈리아 볼자노(Bolzano) 출생으로, Salzburg 아카데미에서 공부 후 1976년 Florence 대학 건축과를 졸업했다. 그는 에토레 소사스(Ettore Sottsass)와 함께 8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멤피스(Memphis) 디자인 그룹을 창설했으며, 1983년부터 2000년까지 Vienna 대학에서 교수로 일했다. 1984년 멤피스 그룹을 떠나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설립하였고, 이는 밀라노와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스튜디오는 70여 명의 건축가, 인테리어 및 그래픽 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건축, 실내디자인, 가구, 조명, 욕실을 비롯한 디자인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마테오 툰의 멤피스 그룹에서의 활동은 규칙과 통제의 폐지에 대한 의미론적인 접근이었다. 그는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보다 감성적인 면을 강조했고, 이러한 이념은 지금까지 그 맥락을 이어왔다. 또한, 마테오 툰은 건축이나 디자인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찾고자 했으며, 클라이언트를 위한 지속적인 맞춤형 전략을 탐색하고, 작품 안에서 자아를 만족시키기보다 반향을 찾고자 했다. 원칙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세계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디자인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MEMPHIS X POST DESIGN SELECTION IN 5 ROOMS

Matteo Thun's favorites from now and yesterday. 40 years after the Memphis movement, Ettore Sottsass' most important influence on today's design is the search for sensoriality.



ZWILLING FOOD&BEVERAGE

Zwilling J.A. Henckels, 2015

Matteo Thun과 Antonio Rodriguez는 10년 동안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Zwilling 컬렉션의 디자인을 담당했다. 브랜드의 기술을 통해 유리의 본질적이고 순수한 모양을 충족했으며, 디자이너의 미적 감각은 내구성 과 기능성에 담았다. 이중 유리는 음료의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촉감까지 전달한다.



The old German elegant shapes with long fork prongs and concave handles inspired a self-confident design, ergonomics and perfect cutting.



VALVERDE WATER BO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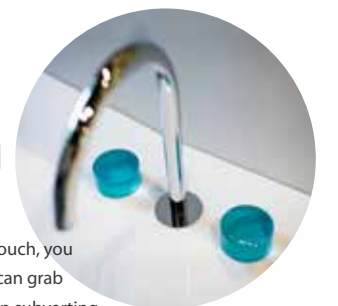
Spumador, 2008

맑고 순수한 물의 본질을 담아낸 병의 디자인.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물"이라는 브랜드의 자신감을 그대로 표현했다. 반짝이는 라벨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았다.

FANTINI BATHROOM

Fantini, 2016

Is it a faucet? You want to touch, you want to play. It seems you can grab color and water. A little alien subverting conventional home landscape.



DURAVIT BATHROOM

Duravit, 2019

D1 - A sensor faucet series. State-of-the-art technology in a new, iconic form.





**HANDMADE VASES
ACCESSORIES**

Manus Factor, 2015

A collection of contemporary decorative ceramic vases and totems shaped by the tradition of the tuscan master potters. The handcrafted collection shows a total of ten different shapes in thirteen combinations of pastel colors.



HANDMADE VASES ACCESSORIES

Manus Factor, 2015

토스카나(Tuscan) 도자기 장인의 전통을 통해 만들어진 세라믹 꽃병. 총 10개의 모양과 13가지의 화사한 파스텔 색상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여러 가지 조합과 배치가 가능하다.



CHIAVARINA COLLECTION FURNITURE

Manus Factor, 2016

이탈리아 리구리아(Liguria)주 키아바리(Chiavari)시의 전통적인 의자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의자 Chiavarina는 장인의 노하우와 전통, 그리고 현대 산업의 기술이 융합되어 있다. 단단한 너도밤나무와 가볍고 탄력있는 직물 좌석이 조화롭게 매치됐다.

A fusion of Italian historical know-how, tradition and the needs of industry 4.0. Handmade chairs, inspired by the typical Chiavari chair originally designed in Liguria Italy.

LISBOA CHAIR FURNITURE

Very Wood, 2017

Lisboa는 부티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의자로, 2.5kg보다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다. 팔걸이 덕분에 편안한 착석감을 자랑한다. 부티크를 위해 제작되었지만, 단순한 라인의 디자인으로 주거 공간 및 카페,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다.



MARA GLASS LAMP COLLECTION

Manus Factor, 2016

Tiepolo 꽃병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단단하고 우아한 테이블 램프. 유리라는 소재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은 공간의 매력적인 포인트 요소가 되어준다. 신비로운 푸른 빛깔과 유연하고 부드러운 라인이 인상적이다.



One single structure that dresses up for four different worlds, playing with special accessories and patterns. From the discreet Urban, to the coziness of Mountain.

ARLON FURNITURE

Désirée, 2018

Arlon은 스튜디오와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Désirée의 두 번째 협업으로 탄생한 제품이다. 유연성과 가벼움이 장점인 소파는 부드러운 가죽으로만 들어져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한다. 팔걸이 또한 조절이 가능하며, 사이드보드 및 스툴 등 추가 아이템 구성이 자유로운 실용적인 컬렉션이다.



The collection of modular, variable elements with strong, fresh colours allows a play with the proportions of different interiors. ARLON's strength is flexibility and lightness.

OUTDOOR COLLECTION ALLAPERTO

Ethimo, 2017

화려한 도시의 호텔에서부터 눈 덮인 산에서의 캠핑까지 실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컬렉션 Allaperto는 천연 티크 나무와 양모로 제작하여 자연의 아름다운 요소를 담아냈다. 깔끔하고 심플한 라인의 디자인과 다채로운 패턴의 색상은 공간을 화사하게 밝혀준다.





WALDHOTEL INTERIOR

Bürgenstock Hotels, 2012-2018

A space for wellness and medical services immersed in the forest and overlooking the Lake Lucerne. All the 161 suites of the Waldhotel melt alpine tradition and innovative care and hospitality.

HANDMADE CERAMICS 7X7 ACCESSORIES

Post Design, 2019

Matteo Thun과 Post Design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수공예 화병 컬렉션. 개성 강한 7가지의 세라믹 도자기는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세밀하고 단단한 도기로 완성됐다. 새하얀 바탕 위로 흩뿌려진 회화적 표현은 마치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The handcrafted ceramic collection 7x7 shows 7 different archetypes with 7 different decorations. Half of the series was painted by tinting the pure pottery using an ancient method that emphasises its fragility and finish.



ARBA LIGHTING

Belux, 2009

단풍나무로 제작된 Arba는 공간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에너지 절약형의 첨단 광원 조명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내보내며, 원목의 따스한 성질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조명은 스탠딩, 테이블 등 4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SIMES "VESTITI DI MATTEO THUN"

Simes, 2016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의 온기가 깃든 나무로 조명을 장식했다. 디자이너는 뛰어난 품질의 목재 선별과 적절한 표면처리 작업을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Inspired by nature and its beauty. Every single piece is dressed by wood with a natural warmth and tells its own story of life through its patina. A perfect solution for sustainable architecture projects.



LISBOA CHAIR FURNITURE

Very Wood, 2017

A long lasting chair of extreme lightness. Lisboa is a seating solution conceived and designed by Matteo Thun Atelier for Very Wood, in order to fulfil specific needs of hospitality, restaurants and bars.



BRERA LIGHTING

Stroiz, 2018

Handmade in Austria. Brera: pure, strong and exquisite parchment contrasts lacquered wood, brass and ebony wood. Botanica: inspired by memories of flowering meadows, treasures of nature become lamp shades.



matteo thun
MATTEO THUN & PARTNERS



FIREFLY IN THE SKY
Panzeri, 2019

www.matteothun.com

ZWILLING FLAGSHIP CONCEPT STORE INTERIOR

Zwilling J.A. Henckels, 2016-2018

What happens when German engineering meets Italian design and Chinese excellence? Can one transform the sensory and hi-touch experience of a knife into a whole flagship store concept?

